

정청래 민주당 대표 “호남지역 예산 적극 챙길 터”

광주·전남·전북 예산 역대 최대…“당 차원 살필 것”

호남발전 보고회 참석…KTX호남선 증편 등 언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호남 지역 예산을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호남발전과제 보고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크다. 이제는 국가가 호남 발전을 위해 무엇을 기여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광주와 전남, 전북 세 지역의 정부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의 정부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며 “예산이 실제 지역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등 예산 편성을 잘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의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이나 호남고속도로 확장이 광주 경제를 빠르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KTX 호남선 공정 운행 및 증편 등의 사업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남은 통합의과대학 설립과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등 교통망 확충과 AI 데이터센터 지원 사업도 챙길 것”이라며 “호남 각 권역의 중점 추진 과제별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국민께 보고 드리고 당 차원에서도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열 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호남은 아픈 손가락 중에서도 더 아픈 손가락이지 않겠느냐”며 “호남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항상 호남인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호남발전특위가 당 지도부에 보고한 호남발전전략에는 RE100 청탄 산업단지 조성과 국립의대 신설 등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지원과 비수도권 지방재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호남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호남 발전과제 보고회에서 지역별 결과 보고를 듣고 있다.

을 확대한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1500억원(국비 90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방

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호남발전

전략이 500만 호남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과제가 추진되도록 당과 특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발전특위는 호남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는 정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에 따라 지난 8월 공식 출범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시-중국 옌청시, 자매결연…자동차·문화관광 협력

대표단 옌청 방문…인구 800만 산업·생태 중심도시
중 동부권 교류거점…지방정부 대중국 외교 ‘눈길’

광주시가 중국 옌청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맺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중국 옌청시에 파견. ‘광주시-중국 옌청시 자매도시 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정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 이후 형성된 한중 협력 강화 흐름과 맞물린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중국 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옌청시와 이날 체결한 자매도시 협정을 통해 중국 동부권 교류 거점을 확보하고 경제·산업 협력, 에너지 전환 및 녹색도시 정책 공유, 문화관광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옌청시와 자매도시 협정 체결에 앞서 지난 4월 광주시의회와 동의

를 받았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자매도시 체결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두 도시의 우정이 깊이 뿌리내리고 교류와 협력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며 “서로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밝혔다. 광주시 대표단은 21일 ‘한중경제협력 교류회’에 참석해 두 나라 지방정부와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옌청 한중산업단지를 찾아 광주지역 기업의 중국 진출 및 협력모델을 모색한다. 대표단은 또 다평항 그린제로탄소 산업단지를 방문해 옌청시가 추진 중인 ‘산업+그린+제로(탄소)’ 모델을 중심으로 고탄소 소비 산업을 친환경·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살핀다. 이어 장수웨다이아자동차 공장과 SK On(배터리 사업부) 등 한중산업단지를 시찰하며 전기차 전략 및 수출 현황 등을 확인한다.



광주시대표단은 22일청시 중국 옌청시에 파견. ‘광주시-중국 옌청시 자매도시 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장쑤성 동부에 위치한 옌청시는 인구 800만명 규모의 산업·생태 중심 도시로, 자동차와 친환경산업 기반이 탄탄하고 유네스코 연안 습지 세계자연유산 보호유하는 등 광주시와 유사한 도시 특성을 가진 지역이다. 또 양쯔강 삼각주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물류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어 경제 교류와 기업진출에도 적합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이탈리아 토리노시, 중국 칭다오시와 우호협력도시 결연 협정을 체결해 유럽과 아시아 교류 기반을 확장했다. 광주시는 현재 13개국 26개 도시와 자매(8개)·우호(18개) 도시와 결연을 유지하며 경제·문화·스포츠·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 완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행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시작했다. 의원급 재진 환자가 원칙이지만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지난해부터 허용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료기관 소재지에 거주하는 초진 환자’까지로 정했다. 진료 수행 기관은 희귀질환자 진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차 의료 기관인 의원급으로 정해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그간 갑론을박이 있었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 도입 문제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 소득이 있는 고령 수급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월 309만원(올해 기준)이 넘어가면 연금이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이 월 200만원 높아진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이 월 50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날 여당은 공공의대 설립법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는 촉구하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의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신속하게(수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 제출하도록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전국 유일 ‘3관왕’

시·도 평가 1위·지역자율계정·시행계획 등 전 부문 석권

전남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부문을 모두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시·도 평가, 지역자율계정, 시행계획 등 3개 부문에서 총 32건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시·도 평가 부문, 지역자율계정 부문, 시행계획 부문에서 모두 5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지방시대위원장 등 기관 표창을 받아 3개 전 부문 석권의 성과를 거뒀다. 시·도 평가 부문에서 종합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자체평가 체계 구축, 내실 있는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높게

평가돼 17개 시·도 중 최우수 지자체(1위)를 차지했다. 지역자율계정 부문에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해 단수 위험을 방지하고,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곡성군과 함평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시행계획 부문에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수립한 광주·전남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중 에너지, AI, 바이오, 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하는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초광역 지역혁신 인력 육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수상

안전혁신부문 대상…‘전국 최초’ 4대 혁신정책 성과 인정

광주시는 2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안전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혁신대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올해 58개 지자체가 117개 부문에 응모했다. 광주시는 단순한 규제 행정을 넘어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예방 행정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4대 혁신정책 ‘제품혁신기획단 출범 제품질관리(시험) 계획서 사전검토제 제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트래미콘·아스콘 생산공장 공동반 운영’이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을 전국 최초로 출범시켰다. 품질혁신기

획단은 지난 4월 ‘민간건설공사 표준준공 계약서’에 품질관리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었다. 광주시는 또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설계 단계부터 건설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재개발원 ‘품질관리 전문과정’을 신설해 현재까지 70여명의 품질전문가를 배출했다.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 공동반’을 통해서도 생산공장 현장점검으로 불량 자체 사용을 사전 차단했다. 신재욱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된 4가지 정책은 모두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상생형 현장 행정’의 결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혁신모델을 확대하며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정달성 의원, ‘민주 당대표 특보’ 공식 임명

북구청장 출마 준비…“지역 현안 해결·정책 지원”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보(사진)로 공식 임명됐다. 정 특보는 앞으로 정청래 당 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주요 개혁과제 추진과 국회 차원의 지역 현안 해결, 정책·입법 지원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임명은 정 의원이 북구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정치·혁신정책·미래전략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경험과 전문성이 당 차원에서 높게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 특보는 북구에서 초·중·고·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토박이 정치인으로, 생활정치발전소 소장, 북구마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북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후보 ‘골목



골목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선 과정에서 조직·정책 측면의 실질적 기여를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 특보가 국회와 정부·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연계 강화, 민생·산업·도시 분야 현안 분석 및 입법 지원, 지역 예산·법안 완성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특보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정치, 데이터 기반 행정,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달성 특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